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권재인  
인쇄인 김재국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TEL. 3673-2851~4  
568-6651~2  
FAX. 568-6653  
www.fipa.or.kr

## 2002년도 어촌·어항예산 2,023억원

### 올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2002년도 어촌·어항예산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당초 요구액 2,397억원의 84.4%, 금년대비 98.9% 수준인 2,023억 100만원 규모로 조정,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가어항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3% 늘어난 1,526억 6,700만원이며, 지방어항은 57억 5,000만원이 줄어든 250억원이다. 이와함께 육지소규모어항 예산은 올해 28억 6,000만원의 220.3%인 63억원을 요구했

으나 전액 삭감됐으며, 어촌 민속전시관 예산은 40억원으로 100% 늘어났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예산은 올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174억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 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자로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 및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제8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柳三男씨



모총장을 역임한 유삼남 신임 장관은 경기대 겸임교수, 민주당 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 주요약력  
△64년 해군사관학교(18기) △81년 영국해군대학 △88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91년 경남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92년 부산수산대 산업대학원 △2000년 서울대 해양정책과정 △93~96년 해군사관학교 교장 △97~99년 해군 참모총장

정부는 9월 7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삼남 국회의원(민주당 전국구, 60세)을 임명했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해군참

2002년도 어촌·어항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1 예산(A)	2002예산		B-A	%
		요구	조정 (B)		
합계	204,625	239,734	202,301	△2,324	△1.1
국가어항건설	148,225	169,506	152,667	4,442	3.0
지방어항건설	30,750	30,000	25,000	△5,750	△18.7
일반회계	102,994	114,997	95,225	△7,769	△7.5
○ 국가어항	89,078	104,496	90,130	1,052	1.2
○ 지방어항	8,000	-	-	△8,000	△100.0
○ 육지소규모어항	2,860	6,300	-	△2,860	△100.0
○ 어촌민속전시관	2,000	3,000	4,000	2,000	100.0
○ 한국어항협회	1,056	1,201	1,144	88	8.3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2,250	6,300	2,000	△250	△11.1
○ 어촌체험관광육성	2,250	6,300	2,000	△250	△11.1
- 체험마을조성	-	6,300	2,000	2,000	
- 어촌휴양단지조성	2,250	-	-	△2,250	△100.0
농특회계 (전입금계정)	88,445	104,557	92,614	4,169	4.7
○ 국가어항	48,211	51,130	50,124	1,913	4.0
○ 지방어항	22,750	30,000	25,000	2,250	9.9
○ 어촌종합개발	17,484	23,427	17,490	6	0.0
채특회계	10,936	13,880	12,413	1,477	13.5
○ 국가어항	10,936	13,880	12,413	1,477	13.5

##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10개 다기능어항 민자개발

해양수산부는 지역어항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어업소득원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내년 부터 오는 2009년까지 전국 77개 어촌·어항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민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장 축소, 수입개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관광부존자원이 풍부한 전국 77개 어촌·어항지역을 선정,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개발잠재력이 높은 전국 57개 어촌을 대상으로 휴식공원, 체험어장, 선착장, 주차장 등 지역기반시설을 내년부터 연차 확충하기로 하고 오는 2009년까지 총 1,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어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9개 어촌체험마을에 총 94억원을 지원, 어촌관광사업과 연계·개발하기로 했으며 동해, 남해, 제주 등 유망지역 5곳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어촌관광마을로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능보완을 추진중인

10개 국가어항의 경우 민자 1,125억원 등 총 1,512억원을 들여 해변공원, 숙박시설, 녹지공간 등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 기본계획수립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속초시 대포항, 남해군 미조북항 등 2개 어항은 관광 등 다기능 어항으로 재개발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울산 방어진 등 8개항은 수산 및 관광기능을 보완·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개발 기본법에 종합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정책이 긴축으로 내달리고 있고,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세계 경제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의 동시다발 테러 사건은 이런 그간의 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젠 다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는 혼란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며, 그 파급은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몰아쳐 오고 있다.

그러잖아도 긴축재정이라는 대명제에 부심해 온 정부 입장에서 볼 때 2002년 예산 편성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어떤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는 느낌이다.

내년도 어촌·어항 예산 편성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금년대비 98.9% 수준인 2,023억100만원 규모로 조정,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방어항 예산이 올해보다 18.7% 삭감됐으며, 육지소규모어항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삭감 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긴축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이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항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규모를 키워오며 나름대로 어촌·어항 개발과 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뛰어온 수많은

어항인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어촌 지역을 또 한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예산 편성의 색깔이다.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을 확연히 구분지으려는 모습이 역력한 것이다. 즉 육지소규모어항과 함께 지방어항의 개발이 큰 침체를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어려울 때 몸을 움츠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매번 그런 자세는 현실안주에 불과할 따름이다. 비록 몸을 움츠리더라도 다음엔 그보다 훨씬 많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사고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럴 때일수록 어항투자를 확대하고, 어항개발 방향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강은전락을 함께 구사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수산업이나 어항산업의 현실로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데엔 이유가 있다.

위기로 치달은 전환기의 한국수산에서 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서 시작해야 하고, 과거 단순개념의 어항에서 어촌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적인 어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역간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해안공간의 창조로 국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래 부르듯 자주 거론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성공적인 어항정책 수립과 예산투입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일류수산대국이 되었다.

우리의 어항 예산 책정도 이를 타산지석 삼아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갈 지금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생각하자



# 어항어촌지역 수산계고교 장학생 선발

## 한국어항협회 2001년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한국어항협회는 9월12일 2001년도 어항어촌지역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 전남 신안군 압해중학교고등학교 수산양식과 3학년 강승완 외 4명, 완도수산고등학교 자연수산과 2학년 박수열 외 5명, 충남 보령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연수산과 3학년 이근희 외 6명 등 총 1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어항시공업체 및 전국어업인후계자 자녀 중 수산계고등학교 및 수산관련학과가 개설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을 의뢰, 심사를 거쳐 모두 18명을 선발하여 각 학교장을 통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수산분야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어항시공업체 임직원 자녀 및 우리나라 수산업을 짊어지고 갈 어항어촌 지킴이인 어업인후계자 자녀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도 어항어촌장학생 명단〉  
□전남 신안군 압해중학교

등학교 △강승완(수산양식과 3학년) △권희진(“2학년) △김미선(“ ”) △손은혜(“ ”) △김선혜(“1학년) □전남 완도군 완도수산고등학교 △박장환(“ ”) △신애진(수산전산과 “) △최송희(식품가공과 “) △최진(자연수산과 1학년) △문강(수산전산과 “) □충남 보령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이근희(자연수산과 3학년) △이기수(수산양식과 “) △한유성(자연수산과 2학년) △박종범(동력기계과 2학년) △김의동(“1학년) △전진환(“ ”) △한용운(“ ”).



## 서해특정해역 폐어망 900여톤 수거 연안어족자원 보존 위해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서해안 특정해역내에서 부유·침적폐어망 등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약 900톤(약 3천㎡)의 폐어망, 폐로프, 닻 등 어업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거사업은 덕적도, 연평도 인근해역 1만 헥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거기간중에 청소선, 어선 등 선박 299척 연인원 1,812 명이 동원되었다.

금번 수거된 폐어망 등 폐기물은 어로활동 중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것으로 그동안 어족자원의 산란·식지를 파괴하고 해군함정을 포함한 항행선박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바다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번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폐어망 등 어업폐기물의 분포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2002년도에도 금어기를 이용,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안어족자원의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버리지 않는 어업종사자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폐어망집하장 설치, 단위수협 및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감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강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제53회 일본전국어항대회 참석 초청

순정식 회장 오는 10월22일 도일

순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坂井 淳 일본 전국어항협회 장으로부터 10월 23일 일본 기타큐슈시 서일본종합전시장신관에서 개최될 제53회 전국어항대회에 초청받았다. 순정식 회장은 22일 도일, 대회전야 환원리셉션과 전국어항대회 참관후 기타큐슈시

관내 주요 어항을 시찰하고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순정식 회장은 이번 전국어항대회에서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 및 농림수산대신 수산청장관 등 정부 각료와 각현 어항관계자들을 두루 접견하고 양국의 어항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 139개연안 친수환경 조성 2006년까지 540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등 연안 관광자원의 보전·이용을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139개 연안지역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등 연안 관광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총 5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백사장, 송림 등 연안생태환경의 관리모형을 개발시행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3억원을 들여 환경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용역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환경개선방안

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별 환경개선사업을 연차 시행할 예정이며 자연경관보전사업과 함께 야외공연장, 야영장, 샤워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연안정비사업과 병행, 다양한 친수공간을 확충키로 하고 연안도시, 공단, 철새도래지 등을 대상으로 해변공원, 해양생태공원, 해양전시관 등 친수공간시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친수공간 조성에 앞서 하반기중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확정, 내년도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 어항청소선 소식

10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동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10. 8 - 12 10. 22 - 26	연도 군산연안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 or. kr	
어항 902호	10. 8 - 13 10. 22 - 27	서광 목포연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 or. kr	
어항 903호	10. 8 - 13 10. 22 - 27	사동 녹동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 or. kr	
어항 904호	10. 8 - 13 10. 15 - 20	미조, 물건 국동	박주종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 or. kr	
어항 905호	10. 8 - 13 10. 22 - 27	능포, 지세포 통영연안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 or. kr	
어항 906호	10. 8 - 13 10. 22 - 25	양포 포항연안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 or. kr	
어항 907호	10. 8 - 13 10. 22 - 27	금진, 안목 남해, 수산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 or. 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모르게 버린 오물**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모르게 오는 피해**

# 제13차 해외어항어촌 조사단을 모집합니다

- 목적 : 해외선진국의 어항어촌에 대한 시책과 정비 및 환경실태를 직접 두루 살펴봄으로써 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코자 함
- 일 시 : 2001. 10. 29(월) ~ 11. 4(화) (6박7일)
- 시찰국가 : 일본
- 시찰어항 : 야마구찌현 : 仙崎어항, 湊어항  
후쿠오카현 : 脇田어항, 神湊어항  
오키나와현 : 糸満어항, 宜野灣어항
- 대 상 : 어항어촌관련 공무원, 시공업체, 용역업체, 회원, 기타
- 참가인원 : 35명 내외
- 전화문의 : (02)3673-2851~4

□ 세부 일정

月 日	行 先	交 通	時 間	旅 程
제1일 10. 29 (月)	히로시마(広島)현	OZ162 전용버스	10:10-11:40 14:00 18:00	인천국제공항 출발 → 히로시마국제공항 도착 야마구찌현으로 이동 석식 및 호텔투숙(야마구찌산과아호텔)
제2일 10. 30 (火)	야마구찌현 후쿠오카(福岡)현	전용버스	09:30-12:00 14:00 18:00	야마구찌현 센자키(仙崎)어항 및 미나토(湊)어항 시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로 이동 석식 및 호텔투숙(야하타로아호텔)
제3일 10. 31 (水)	후쿠오카현	전용버스	10:00-12:00 14:00-16:00 18:00	후쿠오카현 와이타(脇田)어항 시찰 고노미나토(神湊)어항 시찰 석식 및 호텔투숙(우미노나카미찌호텔)
제4일 11. 1 (木)	오키나와(沖縄)현 이도만(糸満)시	NH121 전용버스	09:00-10:35 14:00-16:00 18:00	후쿠오카 → 오키나와 해양박물관 및 민속촌 시찰 석식 및 호텔투숙(나하미야코호텔)
제5일 11. 2 (金)	기노완(宜野灣)시 나하(那覇)시	전용버스	10:00-12:00 14:00-16:00 18:00	이도만(糸満) 어항 시찰 기노완(宜野灣) 어항 시찰 석식 및 호텔투숙(나하미야코호텔)
제6일 11. 3 (土)	오키나와현 오이타(大分)현 벳부(別府)	NH122 전용버스	08:30-10:05 11:00-14:00 15:00-18:00 18:00	오키나와 → 후쿠오카 후쿠오카 → 벳부 이동 종합평가 석식 및 호텔투숙(스기노이호텔)
제7일 11. 4 (日)	후쿠오카 인천	OZ131	10:00-12:30 13:45-15:10	후쿠오카로 이동 후쿠오카 → 인천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 또는 항공 스케줄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항협회





### 기을철 건강관리

일교차 심할때 감기조심  
외출후 개인위생 철저히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자칫 방심하다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기가 쉽다.

어떤 질병이든 인체에서 발병을 하려면 자연환경과 인체와의 평형이 망가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와 같은 원치않는 불청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감기는 기온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후두부위 이상의 호흡기 구조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다시 부위에 따라 편도선염, 인두염, 후두염 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감기의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두통이 있다. 고열과 전신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음식물을 삼키기가 곤란해지는 인두염 그리고 목이 쉬는 후두염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감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예방이나 치료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법은 감염된 환자를 멀리

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족이나 집단내에 환자가 있을 때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으며 양치질을 자주 하여야 한다.

감기는 감기 자체보다는 감기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흔한 합병증으로는 폐렴, 중이염, 만성기관지염의 악화, 천식의 악화,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로의 감염의 파급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적절하게 감기를 치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에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유행성 근육통이 있다. 이 질환은 갑자기 온몸이 저리며 아프고 가슴·복부·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다. 두통이 동반되고 열이 재발성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병은 약 9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이외에 일본뇌염도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일종의 계절병이다. 또 늦가을에 유행하는 질환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을 몹시 당황하게 하는 질환 중의 하나인 가성콜레라라 있다. 이는 설사를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탈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분과 전해질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유행 시기에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8]

## 第4章 地盤改良工

d. 테이핑 혹은 전망과 테이핑 소정의 위치에 기준말뚝을 타설하고 와이어로프를 친 다음 여기에 선박의 이동간격에 맞추어서 전망표식을 부착한다. 개량선상에 설치한 2개의 폴과 와이어로프상의 표식을 한눈에 보는 동시에 와이어로프와 개량선 사이의 거리를 테이프로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측정방법을 그림 4.4.11에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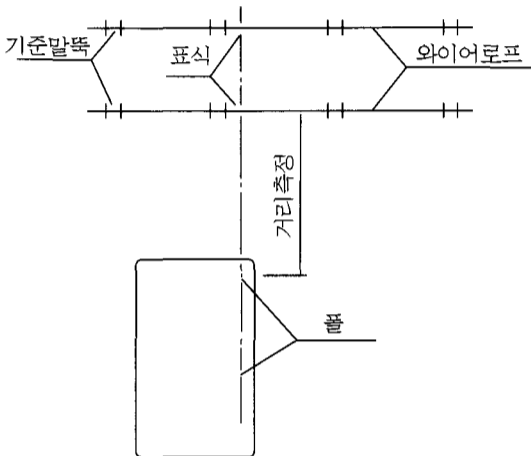


그림 4.4.11 전망과 테이핑에 의한 방법

e. 기타(원좌표 등) 원좌표에 의한 위치선정 방법은 정밀도면에서 약간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9) 오타방지를 떼어내기 2.3 그레브준설과 같이 모래말뚝 조성작업이 완료하면 오타방지를

떼어낸다. (10) 확인 보링 조성된 모래말뚝의 직경이나 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보링을 한다.

(11) 회 항 (3) 회항과 동일하다. (12) 높이쌓인 량의 확인 및 (13) 준설공

심천측량에 의하여 높이쌓인 량을 확인하고 준설공을 시공한다. 준설공은 2.3 그레브 준설과 동일하다. 샌드콤팩션과일 타설로 인해 쌓이는 흙은 종래 철거되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토사장 부족 등의 문제 또는 경제성 면에서 유효하게 리용하는 일이 있다.

높이쌓인 흙을 유효하게 리용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철거하여 압성토(counter balance)하중이나 구조물 배후의 매립재로 리용하는 방법과 철거하지 않고 지반 개량을 하여 구조물의 기초로 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14) 성토공(흙쌓기공) 저지환물의 샌드콤팩션과일공법에서는 말뚝타설 종료후 현지반의 압밀에 의한 강도증가를 기대하고 재하성토를 시공하는 일이 있다.

재하성토는 모래 깔기선 (sand spreader)이나 그레브선으로 계획구역을 소정의 높이로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충분히 직접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공방법이다.

재하성토는 4.2 부설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 4.4.4 시공관리

샌드콤팩션과일공사의 시공관리는 재료관리, 품질관리 및 규격관리가 주가 되나 오타관리에도 류의할 필요가 있다.

(1) 재료관리(말뚝용 모래) 재료관리는 4.3 샌드드레인공과 동일하다(그림 4.3.7 참조).

(2) 품질관리 샌드콤팩션과일을 정확하게 연약층 내에 조성하기 위하여는 작업중 케이싱의 관입깊이나 케이싱내의 사면계적을 자동기록계로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모래말뚝이 비스듬히 박히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또 타입깊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부근에는 조위계를 설치한다.

관리계기로서는 GL계(관입기록계), SL계(사면기록계), V계(모래말뚝높이계) 및 자동경사계가 있다. 시공에 있어서는 이들 계기에 의하여 모래말뚝의 조성과정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마무리 모래말뚝의 깊이, 천단고, 사용모래량 및 말뚝의 연직도 관리를 한다.

### (2)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한다. 묘지구입비, 상석·묘지치장비 등도 공제대상이다. ③채무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상속공제

①기초공제 :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사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도 상속세 부과

이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며,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③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공제(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제한도 없음)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

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④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기초공제(2억원)+기타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나. 일괄공제(5억원). 가. 나. 중에서 선택가능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20%(2억원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 (4)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 세대를 건너 편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 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100)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와 같은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 《사례》

▷ 상속재산 : 주택 2억 8천만원, 토지 10억 5천만원, 합계 13억 3천만원, 채무 1,500만원  
▷ 증빙서류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2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 《계산내용》

①상속과세가액 : 13억 800만원  
상속재산 13억3,000만원-채무 1,500만원-장례비용 500만원(최소 500만원)-공과금 200만원  
②기초공제 : 2억원  
③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④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6,000만원(자녀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연간 500만원×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⑤일괄공제 : 5억원(②+④대신 적용 가능함)  
⑥과세표준 : 3억 800만원(①-③-⑤선택, 일괄공제 유리)  
⑦산출세액 : 5,160만원(3억 800만원×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  
⑧납부할 상속세액 : 4,644만원(자진신고시 ⑦의 10%공제)

생활정보

생활정보